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6/6 월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15:7-9

7 사울은 하월라에서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쳤다.

8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온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망시켰다.

9 그런데 사울과 백성은 아각뿐 아니라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살진 짐승과 어린양과 그 밖의 좋은 것은 모두 남겨 두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완전히 멸망시켰다.

갈 5:17

17 왜냐하면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르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벧전 2:11

11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체류자와 같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롬 8:7-9

7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8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후 3:17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골 2:6-7

6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사무엘기상 15 장은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는 일에서 불순종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사울은 원수를 정복했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불순종했다. 여기서 사울은 완전하고도 철저히 폭로되었으며, 그런 후 사울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버림받았다. 이 장에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중요한 공과가 담겨 있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1 장, 87 쪽)

아말렉은 ‘호전적’이라는 뜻이다. 아말렉은 타락한 옛사람의 총체인 육체의 예표이다(갈 2:16, ...).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육체와 그영의 다툼을 묘사한다(갈 5:17, 비교 벧전 2:11).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었다 (창 36:12). 이것은 육체가 야곱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거듭난 존재와 매우 가깝다는 것을 가리킨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것은 육체가 첫 사람 곧 옛사람에 속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출 17:8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아말렉은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으로 가는 길에서 부딪친 첫 번째 원수였다(신 25:17-18, 삼상 15:2).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모든 원수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육체와 죄와 세상과 사탄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믿는 이들과 맞서 싸우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서는 것이 육체이다(갈 5:17). 우리의 체험을 보면, 육체가 죽음을 당할 때에(갈 5:24, 롬 8:13) 세상은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죄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지 못하며, 사탄은 무력하게 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목적은 그들이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좌절시키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의 육체를 부추겨 우리 자신과 맞서 싸우게 하는 목표는 우리를 우리의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참조 신 8:7 각주 1) (출 17:8 각주 2)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근절하시고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고 결심하셨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아말렉이 우리의 육체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그들의 후손들인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서로 원수였다. ... 이와 같이 육체에 속한 옛사람도 영적인 새사람과 아주 밀접하나, 이 둘 역시 서로 원수이고 병립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육체를 미워하시고 육체를 근절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만일 육체가 근절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자랄 길이 없다. 이 둘은 결코 타협하거나 공존할 수 없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고 또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멸망시켜 그들을 남겨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다(삼상 15 장).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과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 두었다. 사울은 좋은 것을 모두 멸망시키지 않았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완전히 멸망시켰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고 왕위를 잃게 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육체를 절대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사람이 보기에 좋고 존귀한 것을 남겨 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육체 사이에는 어떤 타협도 없기 때문이다.

에스더기에서 모르드개는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모르드개는 끝까지 확고히 맞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또한

유대인들은 구원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가 육체에 굴복하지 않고 심지어 죽기까지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과 육체는 공존할 수 없다! (생명의 체험(하), 9 장, 31-3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1 장;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0 장

6/7 화요일

아침의 누림

갈 2:16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롬 8:7

7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롬 6:6-7

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7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게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롬 7:15, 19-21

15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19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롬 8:5-6, 8

5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8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호전적'이라는 뜻이다. 육체는 싸움을 즐기고,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육체는 매우 파괴적이다. ... 육체는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파괴한다. 그것은 긍정적인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한다.

육체는 호전적이고 파괴적일 뿐 아니라 극도로 교란한다. 여러분이 로마서 7 장을 읽으면 육체가 어떠한 교란을 일으키는지를 볼 것이다. 그 장에 따르면, 바울은 너무 교란되어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겠습니까?"(롬 7:24)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겉으로 보기에 이러한 교란은 죄가 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육체가 야기한 것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6 장, 565-56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말렉은 하나님의 왕국을 거스르는 마지막 원수인 육체의 예표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아말렉보다 더 철저하게 처리된 원수는 없다. 육체는 교회가 합당하게 건축되는 것을 방해한다. ... 교회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처리해야 한다. 만일 육체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분의 머리의 권위가 없을 때 몸이 건축될 길이 전혀 없다. 이런 이유로, 지난 천구백 년 동안 교회의 건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혼돈과 분열은 주로 아말렉 곧 육체에 기인한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육체를 처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비록 육체가 문제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감히 우리의 육체를 무절제하게 두지 않는다. 우리는 참으로 육체 안에 머물러 있을 담대함이 없다.

바울은 그의 글에서 ... 육체가 하나님과 원수임을 보여 주는 어떤 표현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로마서 8 장 7 절에서 그는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단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육체는 추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육체는 불법적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법이 만연해 있다. 육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적이다.

로마서 8 장 8 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육체를 위한 어떤 여지도 없다. 그것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

육체는 타락한 옛사람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육체는 단지 우리 존재의 일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존재 전체를 가리킨다. 로마서 6 장 6 절에 따르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두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루신 것 안에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갈 5:24). 육체의 운명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육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반역적이고 비열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름을 없애 버리기로 결정하셨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7 장, 575-576 쪽)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실지적인 원수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이다. 우리가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이다(롬 8:7).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사탄과 하나이다. 육체가 없다면, 사탄은 하나님과 맞서 싸울 길이 없을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모든 문제는 육체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육체이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1 장, 8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진리 공과, 3 단계, 1 권, 17 과;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16 장

6/8 수요일

아침의 누림

출 17:16

16 이것은 그가 “손 하나가 여호와와 보좌를 거슬러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갈 5:19-21

19 육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부정과 음란과

20 우상숭배와 마술과 적대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편 나누기와 분열과 종파와

21 시샘과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와 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미리 말해 두는데, 이런 것들을 일삼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갈 5:16

16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롬 8:3

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신 25:19

19 그러니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대에게 안식을 주시면, 그대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상 15:2-3

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길을 가로막으며 맞선 일 때문에 아말렉 족속에게 벌을 내리겠다.

3 그러니 이제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들을 남겨 두지 말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라.’ ”

고후 2:11

11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이었는데, 이것은 육체가 하나님께 반역적이라는 것과 육체가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을 거스른다는 것을 상징한다. 육체의 각 방면은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원수이다(롬 8:7).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질 때까지(출

17:14) 육체와 지속적으로 싸우시겠다는 뜻을 정하셨다.(출 17:16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출애굽기 17 장 16 절에서 우리는 아말렉이 여호와와 보좌를 거스르는 손임을 본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말렉은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으로 여겨졌다. 이것은 사탄이 이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아말렉도 하나님의 보좌를 전복하려고 했음을 가리킨다. ... 여호와와 보좌를 거스르는 그러한 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말렉이 하나님의 권위와 대립됨을 본다.

우리 육체의 각 방면은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원수이다. 육체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권위를 주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육체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개개인들로 여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지위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반역적인 태도의 근원은 사탄에게 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육체와 하나이다. 사탄의 원칙은 직접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탄은 뱀의 형태로 하와에게 왔다. 마태복음 16 장에서는 주 예수님을 매우 많이 사랑한 제자인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했다. 사탄은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 왔다. 종종 우리의 육체는 사탄의 걸췌 역할을 한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사용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숨어든다. 그러므로 사탄 자신처럼 육체도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른다. 출애굽기 17 장에 있는 묘사에 따르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이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 가운데 선봉장이다. 그것은 죄와 세상과 사탄을 이끌면서 우리를 대항해 싸운다. 육체와 죄와 세상과 사탄은 모두 서로 연관되어있고 ... 뒤섞여 있다. 그

가운데 믿는 이들과 맞서 싸우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서는 것이 육체이다. 사탄과 죄와 세상은 모두 육체 아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실지적인 체험을 보면, 육체가 죽음을 당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죄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지 못하며, 사탄은 무력하게 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세상이 우세하고 죄가 강하며 사탄이 활동적인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세 원수는 모두 육체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육체는 우리의 첫 번째 원수이다.

육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를 거슬러 반역한다. 육체는 하나님의 보좌와 행정과 계획을 거스르기 때문에 가장 추악한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육체가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육체는 단지 작은 악행만을 저지르지 않는다. 육체는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이다. 육체가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와 싸우시겠다는 뜻을 정하셨다. 아말렉, 곧 육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행정을 거스르는 손이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을 거스르며 반역하고 있음을 뜻한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통치상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대한다. 예를 들면, 교회는 하나님의 행정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육체는 강하게 교회에 반대한다.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교회에 관하여 모독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육체가 반역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참으로 육체는 주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반역에 맞서 싸우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억을 없애 버리실 것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8 장, 591-592 쪽, 46 장, 567, 571-57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6-47 장

6/9 목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15:2

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길을 가로막으며 맞선 일 때문에 아말렉 족속에게 벌을 내리겠다.

롬 8:13

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갈 5:24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 5:17

17 왜냐하면 육체는 욕망을 일으켜 그 영을 거스르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골 3:1-3, 5

1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2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3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여러분의 육체의 각 부분을 죽음에 넘기십시오. 곧 음행과 부정과 나쁜 정욕과 악한 욕정, 그리고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롬 6:6

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히 7:25

25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전 5:17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출애굽기 17 장 8 절부터 16 절까지에 묘사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었고, 여호수아는 선발된 남자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에 대항해 싸워 그들을 패배시켰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패배시킨 후에,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16 절)라고 선포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이 일으킨 방해물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 준다.

사무엘기상 15 장 2 절의 때에 그분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에 아말렉 족속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셨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1 장, 88-8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아말렉에 대항해 싸울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이르렀다. 첫째로, 우리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함으로 싸운다(출 17:11). 산꼭대기에서 손을 든 모세는 하늘들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여기 이 땅에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하나이다. 그러나 육체를 죽음에 넘길 때 우리는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하나이다.

우리는 또한 싸우시는 영으로 육체를 죽음에 넘김으로써 아말렉에 대항해 싸운다 (롬 8:13, 갈 5:17, 24). 로마서 6 장 6 절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 장 13 절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함을 본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5 장 24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를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육체를 죽음에 넘기는 담대함과 격려를 얻는다.

로마서 8 장 13 절에 따르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때 그 영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이것은 그 영께서 얼마나 많이 일하시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원하여 행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 영은 즉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우리는 모두 그 영의 일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 우리에게는 그 영이 필요하고, 그 영께서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분은 우리가 먼저 행하기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순간 즉시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인다.

갈라디아서 5 장의 문맥에 따르면, 그 영과 육체는 서로를 대항하면서 싸우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 영께서 육체에 대항해 싸우시는 동안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영의 일에 협력함으로써 성취된다.

한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해야 하며,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싸우시는 영에 의해 육체를 죽여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하늘들에

계시고, 싸우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늘들에서 그분은 중보기도 하는 모세이시며, 우리 안에서 그분은 싸우는 여호수아이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동역하기 위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육체는 매우 실질적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7 장, 577-578, 582-583 쪽)

갈라디아서 5 장 24 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본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었지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생명의 체험(하), 9 장, 4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체험(하), 9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3권, 생명의 체험을 위한 기본 원칙, 18 장*

6/10 금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15:22-23

22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보다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기뻐하십니까?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3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우상숭배와 드라빔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거절하셨으므로 그분도 왕을 거절하시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출 19:5

5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시 40:6-8

6 주님께서 희생 제물과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귀를 예비하셨으니 주님은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7 그때 저는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저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8 오, 저의 하나님! 주님의 뜻 행하는 것을 제가 기뻐하니 참으로 제 속부분들에는 주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마 7:22-23

22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할 것이지만,

23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갈 3:3

3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그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하게 되려고 합니까?

빌 3:3

3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일어났고, 사울은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무엘기상 15 장 3 절에서 여호와와 사울에게 “그러니 이제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들을 남겨 두지 말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분의 유일한 원수인 육체를 예표하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사울을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을 지혜롭게 안배 하셨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1 장, 8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울은 그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켰다(삼상 15:8 하). 그러나 “아각뿐 아니라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살진 짐승과 어린양과 그 밖의 좋은 것은 모두 남겨 두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완전히 멸망시켰다.” (9 절) 사울에게 이것은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였다.

사무엘은 사울이 갈멜에 가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삼상 15:12). 사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군주국을 부유하게 만든 승리를 거둔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은 사울의 의도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사울이 여호와와 말씀을 준행했다고 선포했을 때, 사무엘은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삼상 15:13-14). 사울은 그것들이 아말렉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들이고, 가장 좋은 양과 소는 백성이 여호와께 바치도록 남겨 두었으며, 나머지는 멸망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만하십시오. 어젯 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비록 왕은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여기실지라도, 왕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여호와와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출정시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맞서 싸워라.’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시고 전리품에 달려들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17-19 절) 사울은 자신은 여호와와의 음성을 청종했지만, 멸망하도록 바쳐져야 했던 전리품 중에서 양과 소는 여호와께 바치려고 백성이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답했다(20-21 절).

사무엘기상 15 장 22 절과 23 절에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매우 강한 말을 했다. ... 사무엘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울이여, 당신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는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아말렉 족속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을 위해 얼마의 양과 소를 남겨 두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이여, 당신은 하나님을 거슬러 거역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점술의 죄와 같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악한 영을 접촉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그 악한 영의 의도를 수행하는 것만큼이나 악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머리이신 하나님 아래 있지 않았고, 주제넘게 당신의 방식과 당신의 뜻에 따라 행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왕권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거절했으므로 그분도 왕을 거절하시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자이자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 드러났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1 장, 89-9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년, 2권, 봉사에 대한 기본 공과, 17-18 장

6/11 토요일

아침의 누림

갈 5:24-25, 16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니다.

16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벧후 1:5-11

5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6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7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8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많아지면, 여러분을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9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어,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날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은 사람입니다.

10 그러므로 형제님들, 더욱 부지런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롬 14:17

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사례는 하나의 경고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육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둬나가 하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앞장 서시어, 그분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를 생명의 노선 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의 영원한 왕국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장차 올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왕국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분의 긍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공과를 보여 주시기 위해 말씀 안에 있는 내재적인 비밀들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과를 배워야 하고, 우리의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며, 항상 모든 일에서 육체를 십자가 위에 두어야 한다(갈 5:24).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시자 완결되신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하나이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왕국, 곧 내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될 것이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1 장, 93-9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육체는 은혜와 대립될 뿐 아니라 왕권과도 대립된다. 이러한 이유로, 육체는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전에 철저히 처리되어야 한다. 육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수 없다. 육체가 처리될 때에만 왕국이 올 수 있다.

로마서 8 장 7 절에서 바울은 육체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육체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좌에 반대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에 복종할수록 우리의 기도하고 싶은 갈망은 더 커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거역하고 그분의 권위를 거절할 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입맛은 사라진다. ... 우리의 태도는 “주님,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은혜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육체는 바로 당신을 떠나 어떤 것을 하고 있는 제 자신입니다. 저는 저의 은혜이신 당신 없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

출애굽기 18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표 혹은 묘사를 본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이 묘사가 제시된다는 사실은 아말렉이 처리될 때에 왕권과 함께 왕국이 즉시 도래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것은 또한 아말렉이 왕권과 대립됨을 가리킨다.

체험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좋은 방면들, 예를 들면 우리의 타고난 미덕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끝내기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우리 육체의 좋은 점들을 귀하게 여긴다. 우리 모두는 사울들이다. 우리는 육체를 처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의 성질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은 처리한다. 그러나 타고난 생명의 좋은 방면들을 기꺼이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위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격려받아야 한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말렉임을 보여 줄 수 있는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은

반드시 완전히 멸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아말렉의 어떤 방면들을 남겨 둔 것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해서는 안 된다.

육체를 철저히 처리하지 못한 여러분의 실패를 변명하지 말라. 여러분에게는 특이한 습관이 있고, 여러분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이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육체를 철저히 처리한다면, 우리는 왕권을 얻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육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철저히 처리하는지를 배우게 하시기를 바란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8 장, 591-596, 598-59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8-49 장

6/12 주일**아침의 누림****갈 5:22-23**

22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23 온유와 자제이니, 이런 것들을 반대할 율법이 없습니다.

롬 8:1-2, 4-6, 9-11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5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마 16:24-26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25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2022. 6. 6 ~ 2022. 6. 9

단체로 읽을 말씀: “교회의 정통”, 7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1 장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6-49 장
생명의 체험(하), 9 장

593. 아담에 속한 것

1 아담에 속한 것 죄와 죽음뿐
주 안에서 의와 생명을 얻네
육체에 거할 때 아담 표현해
영 안에 있을 때 주님 나타내.

2 아담 안에서는 죄 안 지어도
사형 선고 받은 죄인인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선행 안 해도
이미 의롭다하심을 받았네.

3 육체 안에서 나 노력 안 해도
아담의 죄 본성 표현하게 돼
영 안에서 노력 열심 없어도
주님처럼 살고 왕 노릇 하네.

4 주와 함께 죽어 아담 떠나고
주와 함께 살아 생명 얻었네
육체 생각하면 옛 아담 사나
영을 생각하면 생명 확증돼.

5 영만 생각하면 구원 받으리
영만 생각하면 주가 나타나
영만 생각하면 이길 수 있네
영만 생각하면 경주 마치리.

6 영만 생각하면 십자가 알고
주의 부활 능력 흘러가리라
영만 생각하면 주를 살게 돼
내 속에서 주의 생명 성숙해.

7 영 안에서 주 내 생명 모든 것
강건하게 하고 축복 주시네
영 안에서 살 때 거룩하게 돼
삼일 하나님 내 맘에 움직여.

악보 / 음악 (한 435 / 영 593)

<http://khymnal.org>